불법주차 보복은 이렇게

▲ 베일리가 설치한 불법주차 금지 표지(작은 사진)와 랩에 쌓인 불법주차 차량. 사진= tyla.com 화면 캡처

집 앞 불법 주차에 화가 난 한 남성의 복수가 화제다.

지난 17일 인터넷매체 Tyla(tyla.com)에 따르면 영국 켄트주 마게이트시에 사는 토비 베일리(49)는 집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늘 골머리를 앓았다. 26가구가 사는 동네에 주차 공간은 24개뿐이다 보니 주차난으로 인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베일리는 "진입로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작년에 2,000파운드(약 3천 달러)를 들여 주차금지 표지판까지 세웠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법주차는 끊이지 않았다. 효과는 미미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베일리가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집 앞에 불법주차한 차량이 있었고 그 때문에 딸아이는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다. 베일리는 빨리 차를 옮기라고 메모를 남겼지만 그 다음 날까지도 불법주차 차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화가 난 베일리는 검은색 랩 한 무더기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곤 불법주차된 차량 전체를 검은색 랩으로 둘둘 말아 감쌌다. 그제야 차주가 나타났다. 차주는 두 집 아래 사는 젊은 여성이었다.

베일리는 "이 여성은 영화 '배트맨' 속 '배트카' 처럼 온통 검은색으로 도배가 된 자신의 차량을 보고 오히려 재밌어하며 다시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다." 고 전했다.

3년 동안 책 7,000권 읽은 맹인 할아버지

시각 장애 판정을 받은 80대 할아버지가 장애 판정 후 3년 동안 약 7천 권의 책을 읽어 화제다.

중국 충칭 사핑바구에 거주하는 80대의 마 씨 할아버지와 장 씨 할머니 부부의 하루는 매일 오전 9시 인근 도서관을 찾는다. 노부부가 도서관을 찾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장 씨 할아버지가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장 씨 할머니는 "시각 장애가 심각해진 후 안전 등의 이유로 한동안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면서 "그러자 곧장 우울증세가 찾아왔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디든 가자며 나선 곳이 도서관이었다." 고 말했다. 노부부는 도서관이 문을 여는 오전 9시부터 문을 닫는 오후 4시까지 도서관에서 각종 서적을 두루 읽고 있다. 할아버지가 시각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청각 도서를 읽는 동안 할머니는 열람실에서 일반 서적을 열람하는 방식이다. 점심 식사는 주로 도서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사를 마친 뒤 또다시 책 읽기를 이어간다. 이렇게 마 씨 할아버지가 완독한 도서의 수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7천 권이 넘는다. 이는 해당 도서관이 소장한 시각 장애인용 도서 전권의 분량이다.

▲ 사진=나우뉴스

최근 도서관 사서들은 마 씨 할아버지를 위한 새로운 시각 장애인용 도서를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마 씨 할아버지가 해당 도서관에 비치된 모든 시각 장애인 전용 도서를 이미 완독했기 때문이다.

한편, 노부부의 사연이 공개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마 씨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매일 아침 집 밖을 나서는 할머니의 마음이 진짜 사랑이다' , '사는 동안 끝없이 배우고자 하는 할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할머니에게서 책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다' 는 등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10살 남자친구의 아이 가졌다던 13살 소녀

지난해 10살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렸던 13살 소녀가 우여곡절 끝에 건강한 딸을 얻었다. 이 소녀는 출산이 임박하자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았다.

러시아 소녀 다샤 수니쉬니코바(13)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몸무게 3.6kg의 딸을 출산했다고 알렸다. 이 소녀는 지난해 유명 TV 프로그램 '온에어 라이브' 에 출연해 아이의 아빠가 10살짜리 남자친구인 이반이라고 말했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10살 소년은 생식능력이 없는 점을 들어 거짓말 가능성을 제기했다. 방송에 출연한 비뇨기과 전문의는 "실수가 없도록 세 번이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면서 "소년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조차 없었다. 사춘기도 시작되지 않았다." 라고 강조했다.

▲ 다샤(오른쪽)와 이반. 사진=newswatch.ng

그러나 다샤와 남자친구인 이반과 심지어 부모들까지 둘의 임신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출산이 임박한 지난 6월 소녀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소녀는 15살짜리 다른 소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그럼에도 이반은 자신의 아이로 키울 거라고 말했다.

다만 다샤는 "남자친구가 16살이 되면 아버지 자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앞으로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라고 마음을 밝혔다.

경찰은 일단 다샤가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만큼, 수사를 위해 아기의 DNA 샘플을 채취할 예정이다.